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0일 화요일 음 9월 4일 (11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14~15°C, 낮 최고 기온은 22~23°C로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Humidity (강수 확률) for various times.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뜰때) and Temperature (기온).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날씨, 기온).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생활·안전) and Value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월드뉴스

14개월 만에 돌아온 홍콩 민주운동가

“중국에 구금·심문 당했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사라졌던 64세의 여성이 14개월 만에 나타나 지난 1년간 중국에 구금됐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홍콩에서 연 기자회견서 “중국에 구금됐었다”고 밝히는 알렉산드라 웡.

19일 홍콩 매체에 따르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알렉산드라 웡은 지난 17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접경지대 검문소에서 체포된 후 1년 이상 선전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갇혀 있었다고 밝혔다.

오성홍기 앞에서 몇시간 동안 계속해서 있도록 했으며, 이후 산시성으로 5일간 ‘애국심 고취 여행’을 떠나 오성홍기를 흔들며 중국 국기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해야 했다고 밝혔다.

웡은 “검문소에서 경찰이 나를 큰방으로 데려가 수색한 후 푸젠구 경찰서로 이송해 심문하고, 시위활동에 참여한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조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웡의 증언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불투명한 사법체제에 대한 생생한 묘사”라며 “많은 홍콩인이 자신들에게도 곧 닥칠 일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보도했다.

그는 푸젠 구금시설에 15일간 갇혀 있었고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겨져 30일간 형사 구금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자신을 중국 국기인

연합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송창우 농부

일을 대충 마친 가을의 오후. 태양이 남서쪽으로 기울어 큰 삼나무에 걸리기 전에 일을 접는다. 폐를 튼튼하게 하며 기침을 멎게 한다는 도라지 소와 이파리가 깻잎과 비슷해 식용채소이며 태아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소엽 씨앗을 털었다.

작약 주변에 자라는 잡초를 제거하던 얼굴을 들고 밭모퉁이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저녁 들녘풍광은 낮에 보았던 모습과도 다르다. 숲을 베어낸 공

고개를 들고 가을 하늘을 보자

터에는 가을과 함께 피어난 역새가 불어오는 바람결에 파도타기를 하고, 길 옆 옹벽을 가렸던 담쟁이도 붉게 물들었다. 어디 이뿐인가. 한 달 전쯤인가에는 7년을 땅속에서 생활하다 일주일의 여행을 마친 때가 울던 그 자리엔 귀뚜라미가 여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끊어질 듯 에타게 짝을 찾고 있다.

울을 터트리며 소생의 기적을 목격하고, 성장의 드라마를 썼던 여름을 거쳐 영감과 수확,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기침과 재치기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물리적 답답함도 있지만 팬데믹, 언택트, 플랫폼 등 듣기에도 생소한 용어가 난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나 고개를 돌려보면 즐비한 고층아파트와 건물들, 아침에 왔다가 저녁이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이다. 지난 봄 양상한 나뭇가지가 꽃망

이런 사회분위기에 잘사는 사람과 하루하루를 벌며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 놓여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욱 높게 쌓이고 있다. 택배사업자들은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도 정작 그곳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다. 최근에는 또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과로 사라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얼룩말들이 동료 하나 사자에게 갈라리 찢기는 것을

목격하며 신경질적으로 울어대다가 그 상황이 끝나면 평온하게 다시 풀을 뜯는 것과 같다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할 뿐이다. 다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기에 연대가 필요한데 말이다. 함께 살아야 하는 게 인간의 속명이다. 이 속명에는 평등이라는 사회정의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저무는 태양 위쪽 붉은 하늘에는 사자 갈기도 하고, 그의 먹이가 된 얼룩말의 모습으로 변하며 검붉은 구름이 떠간다. 그래서 어떤 이들도, 많은 종교에서도 저곳을 죽으면 간다는 영적 세계의 지정학적 위치로 지목했으리라.

저곳에는 영혼과 육체까지 끌여 모으고, 탐욕이 넘쳐나고 돈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지상의 정글 같은 세계가 펼쳐지는 않을 테지. 그래서 고개를 들고 가을 하늘을 바라보자. 평등한 세상을 기대하며.

열린마당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



김상현 제주시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외환 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환란 와중에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한국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이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빈곤 예방을 위한 위기안전망 구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받지 못한 빈곤층가구에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

‘펫티켓’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고경학 제주시 도무동주민센터

“여기 공원인데요, 반려견과 운동하는 주민이 배변봉투를 쓰지 않고 배설물을 방치한 채 떠나고 있어요.”

“울레길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인과 다니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종종 걸려오는 민원 내용들이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라는 사회적 트렌드 속에 반려견을 가족 삼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늘고 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원이나 울레길

등에서 반려견의 배변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펫티켓’ 의식이 아직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펫티켓’이란 애완동물(pet)과 예의범절(Etiquette)을 뜻하는 합성어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로 산책 시 목줄과 인식표, 배변봉투 등을 지참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개는 인간과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려동물 전성시대인 요즘, 반려견 인구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반려견과 여행도 증가할 것이고, 반려견과 관련된 갈등, 사건사고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상반된 두 입장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려견 외출 시에는 꼭 목줄과 배변봉투, 입마개 등을 챙겨 ‘펫티켓’을 지키는 아름다운 반려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featuring product images, benefits like '100% water solubilit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onghyup Co. Ltd.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featuring a large headline '농업인이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product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 Potra Jeju City Office.